

# 유니드, 칼륨·염소 중국공장 준공

## 중국 현지시장 직접진출 ... 칼륨계 5만톤 및 염소계 5만톤 건설

동양제철화학그룹의 자회사 유니드(대표 이화영)가 11월26일 중국 강소성에서 100% 출자법인 유니드강소화공유한공사의 칼륨 및 염소 공장 준공식을 거행했다.

준공식에는 진강시 사화평(史和平) 당서기를 비롯해 당정인사, 향인상공회의소, 협력기업 대표 등 20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3000만달러를 투자해 건설된 중국공장에서는 가성칼륨, 탄산칼륨을 비롯한 칼륨과 염소계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, 생산능력은 칼륨계 5만톤, 염소계 5만톤 등으로 총 10만톤이며 매출은 약 3000만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.

### 유니드강소화유공사 전경



다.

유니드는 중국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현지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.

칼륨과 염소계 제품 국내 플랜트는 인천에 소재해 국내 및 해외 수출물량을 전담하며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.

유니드의 주요 생산 제품은 의약품, 농약, 특수 유리, 반도체, 합성세제, 사진약품, 기타 각종 정밀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·고부가가치 제품이다. <심혜련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27>